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CLOCKWORK CROW

가제 : 태엽으로 움직이는 까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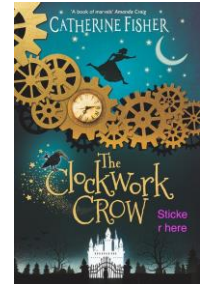
저자 : Catherine Fisher

출판사: Firefly Press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 티르 나 노그 아동 문학상 수상 작가 / 2019 블루 피터 북 어워드 결승 진출작
- \* 출간 후 첫 5개월 간 8,000부 판매 / 터키, 러시아 판권 계약, 미국 옥션 진행 중
- \* “동화에서 느낄 수 있는 진한 울림이 가득한 이야기.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글” - 「가디언」

12년간 고아원에서 살다가 겨우 먼 친척 할머니에게 발견됐지만, 6개월 만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또 다시 고아가 된 세렌은 어둡한 밤, 홀로 기차역으로 향한다. 너무 어릴 때 세상을 떠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세렌의 대부인 캡틴 아서 존스라는 분이 돌봐 주기로 했다는 변호사의 편지를 받고 웨일즈 행 기차를 타러 온 것이다. 캡틴 존스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고,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되새기며 세렌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다. 책으로 꼭 찬 묵직한 짐 가방을 들고 역에 들어선 세렌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얼어 붙은 공기, 적막한 역사에서 꿈꿨던 언 몸을 녹이려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던 세렌은 마침내 나타난 역무원의 배려로 1등석 손님들을 위한 대기실로 들어간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 옆에서 시퍼렇게 변한 손가락을 녹이던 그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대기실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커다란 키에 모자를 꼭 눌러쓴 남자가 신문지로 감싼 작은 상자 하나를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세렌을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다가온 그는, 누가 쫓아 오는 것처럼 연신 두리번대며 상자를 꼭 끌어 안았다. 그러다 “그들이 나타났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더니, 세렌에게 다급히 상자를 건넨다. ‘그들’이 밖에 찾아왔는지 보러 나가야 하는데, 잠시만 맡아 달라는 것이다. 남자는 만일 자신이 기차가 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대 상자를 그냥 놓고 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렌은 엉겁결에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대기실 밖으로 나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역무원에게 말기고 기차를 타려던 세렌은 늦은 밤 기차에서 내린 인파에 쓸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알 수 없는 상자를 손에 쥔 채로 기차에 오른다.

자리에 앉아 상자에 묶인 끈을 풀어낸 세렌은 조립 장난감으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한다. ‘태엽 까마귀. 절대 조립하지 마시오’라는 말이 적힌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장난감인데 조립을 하지 말라니? 왜 그 남자는 아이들이나 가지고 놀 법한 이런 물건을 그렇게 소중히 꺼안고 있었을까? ‘그들이 보면 가져갈 수도 있다’며 굳이 처음 본 세렌에게 말긴 이유는 무엇일까? 알 수 없었지만, 세렌은 일단 주인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잘 보관하기로 결심한다.

자정이 다될 무렵, 웨일즈에 도착한 세렌은 크게 실망한다. 다정한 식구들이 환영해주리란 기대는 부엌 외에는 불도 켜지지 않은 집안에서 웃음기 하나 없는 아줌마 한 사람만 나올 때 이미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자신을 저택 가정부라고 소개한 빌리어스 부인과 역에서 세렌을 마차에 태우고 데려온 잡역부 덴질 외에는 그 큰 저택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캡틴 존스 부부는 런던에 있다는 말에 실망한 세렌은 부부의 아들 토모스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가 싸늘하다 못해 섬뜩한 빌리어스 부인의 눈빛과 마주한다. ‘버릇없는 계집’이라는 꾸짖음과 함께, 부인은 두 번 다시 토모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호통친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상한 건 또 있었다. 빌리어스 부인은 세렌에게 저택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은 출입 금지 구역이며, 정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허락 없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호수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 놓는 부인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해진 세렌은 기분 전환 삼아 의문의 상자에 들어 있던 장난감을 조립해보기로 마음 먹는다. 태엽 장치가 달린 작은 까마귀의 형태를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파란 눈을 딸깍, 끼워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숨을 불어 넣은 것처럼, 까마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설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차가운 겨울, 낯선 저택으로 온 세렌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토모스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모험을 추리 소설처럼 수수께끼와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로 그려낸다. 빌리어스 부인의 불친절하고 무뎠직한 지시에도 기 죽지 않고 넘치는 호기심과 대담함을 앞세워 캡틴 존스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사에 나선 세렌은 1년 전 토모스가 호수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충격에 부부는 더 이상 집에 머물지 못하고 런던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토모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렌은 토모스의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에 숨겨진 터널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어쩌면 토모스의 실종이 까마귀가 담겨 있던 상자를 건넌, 정체불명의 남자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소리 없이 다가와 토모스를 데려간 ‘그들’이 사는 곳, 눈과 별빛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까마귀와 함께 ‘피와 눈물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얼음 궁전을 찾아나선 세렌의 모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멋진 상상력이 돋보이는 판타지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캐서린 피셔(Catherine Fisher)는 시인이자 아동 소설 작가로, 웨일즈 ‘Young People’s Laureate’를 최초로 수상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SnowWalker』 3부작 등이 있다.

제목 : THE LOOP

가제 : 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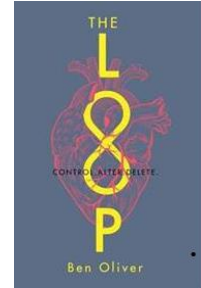
저자 : Ben Oliver

출판사: Chicken House (UK) / Scholastic (US)

발행일: 2020년

분량 : 약 340 페이지 (미정)

장르 : SF 스릴러



**\* 영국 최대 독립 프로덕션 업체 Lime Pictures에 TV 시리즈 판권 계약**

**\* 무자비한 인체 실험이 합법화된 미래, '루프'에 갇힌 수감자들의 삶을 그린 SF 스릴러 3부작**

열여섯 살 생일 날이자 루프에 들어온 지 736일째인 6월 2일 아침, 루크는 여느 때와 같이 벽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터져 나온 기상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싱글 침대 하나와 벽 한 쪽에 붙은 창문, 작은 화장실이 딸린 좁은 공간이 루크가 2년째 집이 아닌 곳에서 생일을 맞이한 장소였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가둬두는 곳, 탈옥은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 감옥 루프였다. 벽마다 설치된 인공지능 스크린은 '해피'라 통칭되는 시스템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물론 외부와의 접촉이나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다. 그저 오늘 날씨와 온도, 현재 몸 상태, 식사 시간이 되면 단출한 메뉴 중 한 가지를 고르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3초에 한 번씩 수백 개가 넘는 1인실 감옥 전체가 자동 스크리닝되고 수감자들의 손목과 심장에는 처음 루프에 들어온 날부터 특수한 장치가 강제로 설치되므로 이 철저한 감시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하루 40분씩, 바깥 쪽으로 향한 벽 전체가 열리고 세모 모양의 작은 뜰에 나가 바깥 공기를 쉴 때마다 루크는 탈옥을 논의하는 다른 수감자들의 열띤 음성을 듣는다.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저 두꺼운 벽 너머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이지만, 루프에서 기계 음성이나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다들 이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루크에게도 가장 소중했던 이 짧은 운동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바로 옆 감방에서 루크가 루프에 들어온 직후부터 좋은 친구가 되어준 매독스가 없기 때문이다. '집행 지연'으로 알려진, 인체 실험에 자원한 매독스는 마지막 실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딘가로 실려갔다. 매독스에게서 활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꼈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루크는 매독스를 잃은 슬픔과 그것이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바깥 세상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 받은 루크 같은 범죄자들만 수감된 루프에서는 사형 집행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정부가 실시하는 인체 실험에 피험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루크와 같은 '일반 계급'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몸을 그대로 갖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변형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몸과 건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코를 더 높이거나 눈을 더 키우는 성형수술도 가능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특정 장기를 바

꾸거나 고쳐서 아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형 계급'의 변화도 다른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숨을 수십 분까지도 안 쉬고 참을 수 있는 폐활량 등 초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과 사이보그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이 같은 눈부신 기술 발전의 뒤에는 루프에 갇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생체실험이 있었다.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화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과학적, 의학적인 연구가 줄을 이었고, 갓 개발된 기술을 변형 계급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수감자들이 활용되는 것이다. 루프에 처음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수감자들은 대부분 절대 스스로를 실험용 쥐처럼 내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사형 집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 예외없이 살고 싶은 절박함에 실험대 위로 향한다. 루크의 유일한 친구였던 매독스는 눈 하나를 특수한 기능이 내장된 기계장치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운동 시간에는 조금 기운이 없긴 해도 여전히 쾌활하게 루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2-3일 뒤부터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집행 연기를 위해 실험에 자원한다 해도 어떤 수술을 받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의학 혹은 과학자들은 진통제 한 방울 주지 않고 피험자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지 관찰했다. 루크는 곧 다가올 자신의 실험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온 몸을 떨었다.

루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은 또 있었다. 저녁마다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에너지 추출'이다. 죄를 지은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량한 시민이 세금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루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수백 명에 달하는 각 수감자의 인체에서 직접 뽑아가는 절차였다. 감옥 천장에서 내려온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온 몸의 에너지가 흡입되는 빨려 나가는 그 짧은 시간을 730회 넘게 겪을 때마다 루크는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곧 끝나는 고통 임을 잘 알면서도 매번 죽음을 떠올릴 만큼 괴로웠다. 이토록 맨 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루프에서 루크가 2년 넘게 미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건 '인간' 간수이자 루크가 마음으로 크게 의지하는 렌이 몰래 가져다 주는 책 덕분이었다.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된 만큼 골동품 상점에 가야 구할 수 있게 된 종이 책이 오히려 보안 검색에도 걸리지 않는 안전한 물건이 되었기에, 렌은 매일 10분씩 면담을 할 때마다 새로 구한 책을 건네곤 했다. 그렇게 침대 밑에 쌓인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가망 없는 미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루크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다. 바깥 세상에서 차별과 빈곤에 견디지 못한 일반 계층이 변형 계급에 맞서 일제히 봉기했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세계 전체가 인공지능에 지배된 지 오래인데 인간이 시스템에 맞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루크는 매독스처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루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가상 현실이 지배하는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벤 올리버(Ben Oliver)는 스텔링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18세 쓴 첫 단편을 시작으로 문학 잡지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왔다. 위 소설이 장편 데뷔작이다.